≪五岳游草≫의 '五岳' 游記 考察*

權 錫 煥**

<목 차>

1.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2. 五岳에 대한 새로운 시선
3. 산수 자연에 대한 탐구자세
4. 점에서 선으로의 상상력 확대
5. 遠觀을 통한 심상의 확대
6. 결론

1. 선행연구 검토 및 문제제기

본 연구 대상인 '五岳 游記'는 ≪五岳游草≫에 수록된 <嵩游記>・<岱游記>・<華游記>・<衡游記>・<恒游記>를 지칭한다. ≪五岳游草≫는 명말의 유명한 유기 작가이면서 인문지리학자로 알려진 王士性(1547-1598)이 지은 것이다. 왕사성의 자는 항숙(恒叔), 호는 태초(太初) 또는 원백도인(元白道人)이고, 절강성(浙江省) 임해(臨海) 사람인데, 명 만력(萬曆) 5年(1577年)에 진사가 되어 만력 17년(1589年) 광서포정사참의(廣西布政司參議, 從四品)까지 이르렀다. 총 21년 동안 북경・하남(河南)・사천(四川)・광서(廣西)・귀주(貴州)・운남(雲南)・산동(山東) 등지에서 관리생활을 보내면서 당시 중국의 15개 성 중에서 복건성(福建省)을 제외하고 14개의 성을 유람하였다. 그는

*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2012년도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됨.
**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www.kci.go.kr

유람 후에 이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五岳游草≫・≪廣游志≫・≪廣志繹≫에 담겨있다. ≪四庫全書存目叢書・地理類≫에 ≪五岳游草≫ 관련 기록을 보면, 이 책에는 유기 뿐 아니라 그림과 시문이 함께 배치되어 당시의 독자들의 유람에 대한 열기와 유기의 유행을 알 수 있다.[1] 이 책의 原刊은 소실되었고 청대 康熙 시대에 이르러 馮甦가 重刊하면서 세상에 널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악유초≫의 문화적 가치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1980년대 이후 上海古籍出版社와 中華書局에서 현대판으로 출판되었고[2], 1980년 초에 이르러서야 연구가 시작되어 조금씩 그 가치가 부각되었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사성은 중국 최초의 인문지리학자라는 평가이다. 즉 왕사성은 명대 유명한 인문지리학자인 徐霞客(1587—1641)보다 먼저 활동하였고 서하객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다. 譚其驤은 "자연지리적 각도에서 보면 서하객이 왕사성보다 뛰어나지만 인문지리적 각도에서 보면 왕사성이 서하객보다 뛰어나다"[3]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이후 徐建春과 周振鶴 등의 많은 학자들의 동의를 얻었다.[4] 이들의 평가대로 한다면, 왕사성은 중국 인문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사성 자신이 <五岳游草自序>에서 "나는 천지의 조화로운 변화, 인간의 습성과 사물의 이치 그리고 희

---

1) ≪四庫全書存目叢書・地理類≫ <五岳游草>: 士性初令確山, 游嵩岳.擢禮科給事中, 游岱岳・華岳・恒岳. 及參粵藩, 游衡岳. 此外游名山以十數, 經歷者十州. 游必有圖有詩, 爲圖若記七卷, 詩三卷, 不盡於記與詩者爲雜志二卷. 亦名『廣游記』, 統題曰『五岳游草』, 蓋擧其大以該其餘也.

2) 王士性著 呂景琳 點校, ≪廣志繹≫, 中華書局, 1981.
王士性著, 周振鶴 編校, ≪五岳游草≫, 上海古籍出版社, 1993.
王士性著, 周振鶴 編校, ≪王士性地理書三種≫, 上海古籍出版社, 1993.
≪五岳游草≫, 續修四庫全書, 上海古籍出版社, 2001.
廣志繹, 王士性著, 周振鶴 點校, ≪五岳游草≫, 中華書局, 2006.

3) 譚其驤, <徐霞客差相同時的杰出的地理學家—王士性>, 廣西桂林一次明代地理學家徐霞客學術討論會, 1983.

4) 徐建春, <徐霞客與王士性>, ≪浙江學刊≫, 1992年 第4期.
周振鶴, <王士性的地理學思想及其影響>, ≪地理學報≫, 1993年 第1期.

www.kci.go.kr

비와 순역(順逆)의 경우를 내 유람에 모두 반영할 것이다."[5]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자신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모두 통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각도에서 周振鶴은 왕사성의 지리・행정・경제구역에 대한 학설을 소개한 바 있다. 왕사성은 北龍, 中龍, 南龍산맥을 기준으로 形勝을 밝혔고, 행정구역을 兩京, 江北, 江南, 西南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었으며[6], 비단, 쌀, 칠기, 도자기, 골동, 소금 등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13개의 경제지역으로 구획하였다[7]고 하였다. 또한 왕사성은 地脈・形勝・風土 등 지리적 환경과 소수민족・종교・방언 등 인문요소에 따라 문화권역을 나누었고, 그 문화권역 안에서도 또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런 주장에 의하면, 왕사성은 中國地方史와 중국지역문화의 학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공헌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왕사성의 유람이론과 심미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8] 왕사성은 <五岳游草自序>에서 '天游'・'神游'・'人游'라는 유람이론을 제시했다.[9] '天游'는 속세의 공명과 이해관계를 떠나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지로서, 정경교융(情景交融)・천지화육(天地化育)・소요유(逍遙游)의 경계를 말한다. '神游'는 '夢游'로서, 사유적인 유람을 말한다. '人游'는 정사(政事)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유람을 말한다. 왕사성의 이러한 유람이론은 당시 일반인들의 유람 유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진정한 유람 문화를 위한 제언

---

5) 王士性著, 周振鶴 編校, ≪五岳游草≫ <五岳游草自序>, 上海古籍出版社, 1993.
吾視天地間一切造化之變, 人性物理喜悲順逆之遭, 無不於吾游寄矣"

6) 周振鶴, ≪五岳游草≫ <前言> 兩京(北京・南京)/ 江北(河南・陝西・山東・山西)/ 江南(浙江,江西,湖廣, 廣東)/ 西南(四川, 廣西, 雲南, 貴州)

7) ≪廣志繹≫ 제1권<方輿崖略> 蘇杭之幣, 淮陰之粮, 維揚之鹽, 臨淸・濟寧之貨,徐州之車騾, 京師城隍・燈市之古董,無錫之米, 建陽之書, 浮梁之瓷, 寧台之羔, 香山之番舶, 廣陵之姬, 溫州之漆器.

8) 李躍軍, <淺論王士性的旅游觀>, ≪台州師專學報≫ 제21권 제4기, 1999.
敖紅艷, <淺論王士性的旅游審美觀>, ≪前沿≫, 2007년 제9기.
敖紅艷, <試論王士性的"游道">, ≪內蒙古大學學報≫ 제40권 제1기, 2008.1.

9) <五岳游草自序> "夫太上天游 其次神游, 又次人游, 無之而非也. 上焉者形神俱化, 次焉者神擧形留, 下焉者神爲形役. 然卑之或玩物, 高之亦採眞."

이 담긴 것이다.

이와 별도로 王士性은 '廣游'를 주장하였다. 광범위한 유람을 통해 많은 지식과 학문을 축적할 것을 주문하였다. 유람을 통해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과 이것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왕사성은 이미 16세기 유람의 산업적 가치에 대하여 주목하였다고 한다.[10] 명나라 당시에는 이미 西湖를 중심으로 유람산업이 번성하였고 그것이 서민 대중들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이에 대한 건전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왕사성은 환경결정론과 함께 天運循環說을 동시에 주장하였다는 점이다. 각 지역마다 지리적 자연환경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된다는 이른바 환경결정론을 주장하는 한편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제문화의 중심도 이동한다는 순환설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왕사성은 명말에 이르러 경제 중심이 북방에서 남방 楚・吳・越로 이동했다고 주장하였다.[11]

다섯째 왕사성의 저작은 청초 顧炎武의 ≪日知錄≫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12]

이상에서 왕사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연구를 통해 왕사성의 중국 인문지리학, 지역문화학에 끼친 공헌이 상당부분 부각되었으며, 더 나아가 명말의 유람 문화의 성황과 유람이론의 상호 작용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왕사성의 유기문학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것 같다. 晩明 시기에 이르러 교통조건과 환경의 발달, 路程書의 출판, 상인들의 經商 활동이 대대적인 유람 풍조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기가 왕성하게 창작되었고, 고금 유기에 대한 대규모적인 정리가 진행되었으며, 이것이 출판 유통되어 유기의 대중화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에

---

10) 周振鶴, ≪五岳游草≫ <前言>, 上海古籍出版社, 1993.

11) <廣游志序> "自昔以雍冀河洛爲中國, 楚吳越爲夷, 今聲名文物反爲東南爲盛, 大河南北不無少讓何? 客云此天運循環, 地脈移動, 彼此乘除之理. 余謂是則然矣.

12) 周振鶴, ≪五岳游草≫ <前言>, 上海古籍出版社, 1993.

www.kci.go.kr

유행했던 '유기소품'과 '탐구유기'는 유기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독자들을 확보하는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오악유초≫ 권1 <岳游上>의 <嵩游記>・<岱游記>・<華游記>・<衡游記>・<恒游記>를 문학적 글쓰기인 유기적 관점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사성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알아야 한다. 즉 그는 '五岳'이라는 공간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했고, 어떤 자세를 견지했는지 무척 중요한다. 그러고 어떤 유람경로를 통해 경관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피려고 한다.

2. 五岳에 대한 새로운 시선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인 ≪오악유초≫에서 왕사성에게 '오악'의 범주는 어디인가? 그에게 '오악'은 두 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다. 첫째 '오악'은 '전 중국'이라는 등식이다. 실제로 ≪오악유초≫는 비록 '오악'을 표제로 하였지만, 당시 14개 省에 대한 유람 기록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체 권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대표적인 다섯 개 산 즉 '오악'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대상이 바로 이것이다.

그럼 왕사성은 다섯 개의 산악, 즉 '오악'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왕사성은 중국인의 전통적인 오악관념과 달랐다. 어떻게 다른가를 알기 위해 먼저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五岳 관념이 어떠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오악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념은 매우 오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대마다 그 의미가 변화되어 왔으며 그 함의도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史記・封禪

www.kci.go.kr

13) 졸고, <중국 전통 游記의 핵심시기>, ≪한국한문학연구≫ 제49집, 한국한문학회, 2012.6.

書≫는 ≪尙書・舜典≫을 인용하여 오악에 대한 관념을 피력하였다.

≪상서(尙書)≫에서 말하였다. 순(舜)임금은 선기(璇玑)와 옥형(玉衡)을 통하여 북두칠성을 관찰하고 상제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천지사계절에게 제사를 지냈고, 산천에 제사를 지냈으며,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다섯 등급 군신들의 서옥(瑞玉)을 거두어 길일을 골라 사방 제후들에게 다시 나누어주었다. 이 해 2월 동쪽으로 순수를 나갔다가 대종(岱宗)에 도착하였다. 대종은 태산이다. 땔감에 불을 피워 산천의 순서에 따라 망제(望祭)를 지냈다. 마침내 동후(東后)를 접견하였는데, 동후는 제후들이다. 사계절과 달을 일치시켰고 간지를 바로 잡았으며, 음률과 도량형을 통일하였으며, 오례(五禮)를 정리하였다. 오옥(五玉)・삼백(三帛)・이생(二生)・일사(一死) 등급을 집례하였다. 5월에 남악으로 순수를 갔는데 남악은 형산(衡山)이다. 8월에는 서악으로 순수를 갔는데 서악은 화산(華山)이다. 11월에는 북악으로 순수를 갔는데, 북악은 항산(恒山)이다. 모두 대종의 예에 따랐다. 중악은 숭고산(崇高山)인데, 5년에 한 번 순수를 하였다.

≪尙書≫曰舜在璇璣玉衡,以齊七政.遂類于上帝,禋于六宗,望山川,徧群神.輯五瑞,擇吉月日,見四岳諸牧,還瑞.歲二月,東巡狩,至于岱宗.岱宗,泰山也. 柴,望秩于山川.遂覲東后.東后者,諸侯也.合時月正日,同律度量衡,修五禮,五玉三帛二生一死贄.五月,巡狩至南岳.南岳,衡山也.八月,巡狩至西岳.西岳,華山也.十一月,巡狩至北岳.北岳,恒山也.皆如岱宗之禮.中岳,嵩高也.五載一巡狩.

위 기록에 중국인의 오악 관념이 담겨있다. 堯로부터 천하를 선양받은 舜은 사방의 제후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천지산천에게 제사를 지내는 한편 천지사방을 巡狩하여 제후들을 접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의 통치 당시 천지사방은 '四岳'으로 대표되었다가 순의 통치 시절에 이르러 오악이 되었는데, 이는 舜의 통치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순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악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영토 확장과 왕권안정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인의 오악 관념은 요순 시대로부터 시작되었고, 다분히 왕권강화와 영토 확장이라는 정치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관념은 중국인의 지리적 좌표 설정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 지도를 보면, 오악 중 사악이 황하유역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오악이 중국인들의 지리적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고, 이는 中原論의 지리적 좌표가 되었다

www.kci.go.kr

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인들은 오악을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 三神山[14]과 함께 '오악삼(신)산'으로 인식하였다. 언제부터 '오악삼산'이 통합적으로 인식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중들의 입에 오랫동안 오르내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삼신산'은 중국인들이 불로장생의 희망을 담은 상상의 산이다. 그러므로 '삼산'이 '五岳'과 서로 결합한 것은 도교의 五行觀念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한무제(漢武帝) 이후 오악에 대한 봉호(封號)가 추가되었는데, 당현종(唐玄宗)은 오악을 '王'으로, 송진종(宋眞宗)은 오악을 '帝'로, 명태조(明太祖)는 오악을 '神'으로 책봉하였다. 이것은 오악을 삼신산과 함께 숭배의 대상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한편, 오악은 윤리적 대상이기도 하였다. ≪詩經≫의 "태산이 우뚝 솟았네. 노나라가 우러러 본다.(泰山巖巖, 魯邦所詹)"[15]・≪禮記・孔子閑居≫에 "시경에 이르길, 높디높은 저 산은 하늘보다 더 까마득하다고 하였다.(詩曰嵩高維嶽, 峻極于天)"[16] 등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孔子의 "태산에 오르니 세상이 작아 보인다.(登泰山而小天下)"[17]는 것은 '태산'과 '숭산'을 성인의 정신세계 혹은 통치자의 높은 은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설명에 근거해 본다면, 중국인들에게 오악은 전통적으로 산신숭배, 왕권강화, 성역 순례, 윤리의 대상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악'은 결코 탐구나 유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왕사성은 과연 오악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그는 <岱游記>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14) ≪史記・封禪書≫: "自威・宣・燕昭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 去人不遠.患且至則船風引而去.蓋嘗有至者, 諸僊人及不死之藥皆在焉".
≪山海經≫海上有三座仙山, 蓬萊・瀛洲・方丈, 山上是仙境, 有長生不老藥.
≪史記・秦始皇本紀≫"齊人徐市等上書, 言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洲.僊人居之. 請得齋戒與童男女求之. 於是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

15) ≪詩經・魯頌≫

16) ≪禮記・孔子閑居≫

17) ≪孟子・盡心上≫

www.kci.go.kr

그 우측에 하나의 대(臺)가 보이는데, 앞머리에 '秦封禪臺'라 쓰여 있다. 갈천씨(葛天氏) 이래 72명의 군주가 태산에서 하늘에게 제사〔封〕를 거행하였다. 아마도 그중에서 원시시대가 반을 차지하니 이것은 진한(秦漢) 시대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志>에 의하면, 진(秦)나라 때 양보산(梁父山)에 비석을 세웠고, 한(漢) 나라 때에는 석여(石閭)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으며, 황제(黃帝)는 정정(亭亭)에서 땅에게 제사〔禪〕를 지냈다고 한다. 지금 진대(秦臺)는 일관봉(日觀峰)의 우측에 그 이름이 남아 있지만 옛 터는 아니다.

視觀右一臺, 顔者爲'秦封禪臺'也. 葛天氏以下, 封泰山者七十二君, 蓋洪荒半矣, 非秦漢始. 志稱秦碑梁父, 漢封石閭, 黃帝禪亭亭云, 今秦臺右日觀存其名, 非故址也.

이와 같이 왕사성은 태산에 올라 봉선대를 보고 관련된 사실을 서술하였다. 왕사성은 갈천씨 이후 72명의 군주가 봉선의식을 거행하였고, 봉선의 역사는 진한 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秦臺의 유래와 위치 역시 <志>를 인용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왕사성은 오악의 봉선에 대한 자신의 문화적 의미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확인된 사실과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서술했을 뿐이다.

왕사성은 도리어 전통적 관념과 달리 다음과 같이 태산을 해석하였다.

이 산은 올라가면서 보면, 기이하게 돌 협곡을 우러러보며 등산하니 마치 하늘로 가는 관문을 나서는 것 같고, 내려가면서 보면 거대한 광야가 펼쳐져 동쪽 제후국을 한 눈에 굽어보는 것 같다.

此山上而視之, 則奇爲仰石峽而登, 如出天關也. 下而視之則大爲野曠, 俯東諸侯一目而盡也 (<岱游記>)

'天關'을 나선다는 것은 하늘에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이며, 제후를 내려다본다는 것은 순수를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인의 전통적 오악 관념이다. 그러나 왕사성은 '岱宗'이 가지고 있는 전통 관념을 가파른 石峽을 오르거나 광야를 일목하는 경관으로 해석하였다.

www.kci.go.kr

이어서 왕사성은 <恒游記>에서 ≪水經≫과 ≪福地記≫를 인용하여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 ≪水經≫에는 항산의 높이가 3천 9백 장(丈)이라고 하였고, ≪福地記≫에는 항산의 둘레가 백 삼십 리에 달하는 총현동천(總玄洞天)이라고 밝혔다. 나는 태항산(太行山)을 지나 갈림길을 탐색해 보았다. 변방으로부터 만 리를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면서 제왕의 기운이 가득하고 대지가 오악의 짝이 되니, 사실무근은 아니다.
> ≪水經≫稱玄岳高三千九百丈, ≪福地記≫著其周百三十里, 爲總玄之天. 余過太行迹其分支, 自塞外綿邈萬里而來, 王氣盤礴, 厚地以配五岳, 不誣也

항산은 唐나라 이후 '總玄洞天'으로 불리며 도교의 성지로서 유명하였다. 왕사성은 ≪水經≫에서 말하는 항산의 높이와 ≪福地記≫에 말하는 둘레가 과장된 것으로 여기고 산맥의 갈림길을 탐색한 뒤 오악 중의 하나가 되기 충분하다고 여겼다.

이처럼 왕사성의 오악관념은 전통적 관념과 달랐다. 왕사성에게 오악은 종교적 대상이거나 왕권 강화의 수단이 아니었다. 산신 숭배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지리적 공간으로 또는 하나의 경관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악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기록하거나 보이는 대로 인식했을 뿐이다. 게다가 왕사성은 오악을 유람하는 동안 만났던 스님과 도사들과 특별히 종교적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스님과 도사는 왕사성의 종교적 대화 상대가 아니라 길 안내자이거나 혹은 위험한 산행을 만류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道觀과 寺廟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하고 자신의 종교적 관념을 최대한 생략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왕사성은 오악을 객관적인 경물로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오악을 관념화하거나 새로운 인식을 보태지도 않는다. 결론적으로 왕사성은 중국 최초로 오악의 전모를 경관적 시선으로 파악하고 이를 유람하여 기록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3. 산수 자연에 대한 탐구자세

그러면 왕사성은 경관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

송대의 곽희(郭熙)가 ≪林泉高致≫ <山木訓>에서 산수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3대 조건 즉 '호(好)', '근(勤)', '포유어간(飽遊飫看)'[18]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산수를 좋아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부지런히 조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마음껏 유람하고 질리도록 구경해야 한다고 했다. 왕사성은 바로 이 세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화산의 청가평에서 정상까지 오르는 과정을 가지고 설명해보자. 이 구간은 매미와 새도 날지 않는 20리 험로이다. 폭이 한 자 밖에 안 되고 게다가 수만리 절벽에 붙어있다. 길이 끊어진 곳은 나무 사다리로 건넜고 바위는 밧줄을 잡고 원숭이처럼 기어오르내리는 이른바 '현급(懸汲)'이라고 했다.[19] 동행했던 도사가 산길이 험난하고 게다가 비가 내리니 정상 유람이 어렵다며 만류하였다. 왕사성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유람을 강행하였다. 첫째 험난한 곳에 절경이 있다. 둘째 안개가 짙으면 험한 것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산에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왕사성은 장마 비가 내리는 가운데 화산의 남봉을 오르게 되었다. 이 구간은 잡목이 무성하여 가시가 눈을 찌르고, 앞 사람이 지나면 잡목에 가려 보이지 않는 희미한 길이었다. 이처럼 왕사성이 모든 험난한 여정을 무릅쓰고 유람을 강행했을까? 이 역시 곽희가 말한 유람을 좋아하고, 부단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마음껏 오묘한 자연의 절경을 맞보기 위함이었다.

이어서 그의 탐구적 자세에 대하여 알아보자. 왕사성은 유기를 창작함에 있

18) 郭熙, ≪林泉高致≫ <山木訓> "欲奪其造化 則莫神於好,莫精于勤,莫大于飽游飫看"

19) <華游記> 自坪至頂二十里, 蟬鳥遂絶, 木惟松始生, 路僅徑尺, 臨萬仞壑, 絶處則鑿石度以木棧. 欲上令善導者以絙曳之,下則留絙於後, 其名爲'懸汲'. 遇險甚則如猿升木, 手足相禪, 不能全用足行也.

www.kci.go.kr

어 자료나 소문에 근거하는 것을 부정하고, 직접 보고 들을 것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는 ≪廣志繹≫ <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세상에 귀로 들어 믿을 수 있는데 눈에 남지 않는 것이 없으며, 눈으로 보아 믿을 수 있는데 마음에 남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매번 소문을 듣고 말을 하며 거짓으로 책을 쓰게 되면 나는 안 된다고 말한다. 모두 직접 보고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빼는 것이 낫다.
>
> 蓋天下未有信耳者而不遺目, 亦未有信目者而不遺心, 故每每藉耳爲口, 假筆於書. 余言否否, 皆身所見聞也, 不則, 寧闕如焉[20]

이와 같은 탐구정신과 실증적 자세가 모두 다섯 편의 유기에 반영되어 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왕사성이 서하객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탐구자세였다. 탐구자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람 도중에 여러 가지 험준한 난관을 대하는 태도이다. 왕사성은 난관을 만나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천척당 구간에 대한 묘사를 보기로 하자.

> 드디어 천척당(千尺撞)에 도착하였다. 천척당은 세 구비로 되어 있고, 거의 3백 보에 달하였다. 돌 틈이 구멍으로 변하였고, 그 구멍은 웅덩이가 되었다. 가로로 나무 사다리가 걸쳐있다. 고개를 들어서 보아도 천척당 꼭대기는 보이지 않았다. 속으로 겁이 났으나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따르는 사람이 머뭇거릴까 두려웠다. 손과 발로 사방을 지탱하고, 오른 손은 패인 돌 틈을 잡았으며, 왼손으로는 앞에 있는 나무를 잡았다.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고 과감하게 뒷다리를 차례로 이어갔다. 한 도사가 아래에서 나를 부축이며 올려 보냈다. 처음에는 기어 올라가도 느낄 수 없다가 중간 고비에 이르러 비가 더욱 심하게 내려 부들거리는 다리로 바위 패인 곳에 쭈그리고 앉아 피하였다. 고개를 돌려 가늠 할 수 없는 구덩이를 내려다보면서, 다시 마른 가지를 밟고 반쪽 다리를 지탱하였다. 간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
> 遂上千尺撞. 撞三折, 幾三百步. 石裂成罅穴, 罅傍成坎, 以木乃木桄橫接之如梯. 余仰不見撞頂, 內懾而不言, 恐阻伻輩也. 乃試以手足四據, 右手扳石坎, 左手執前桄, 桄不挽机, 方敢以後足次第承之. 一黃冠下佐余足以上, 初惟伏而升弗覺, 比至中折, 雨甚, 側足蹲凹避之, 回視俯不測之塹, 又躡枯枝依其半, 膽始落矣

www.kci.go.kr

20) 王士性 撰, 呂景琳點校, ≪廣志繹≫ <自序> 元明史料筆記叢刊, 北京: 中華書局, 1981.12 第一版, 1997.11 第二刷.

비가 내리는 천척당을 어렵게 오르는 장면이다. 손과 발로 사방을 지탱한 채 돌 틈과 나뭇가지를 잡고 간신히 올랐다고 하였다. 겁이 나고 간담이 서늘하였지만 내색을 못했다고 하였다. 안개와 비가 시야를 가렸고, 장맛비에 자란 풀이 무성하고 길이 패여 분간 할 수 없었다. 왕사성은 스님과 도사, 그리고 동행자들의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발길을 간단없이 이어갔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사성은 험난한 곳에 절경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을 체험하려는 심미적 자세를 가졌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하려는 탐구 자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점에서 선으로의 상상력 확대

앞서 왕사성이 오악을 경관적 시각으로 파악하고 유기 작품을 남긴 작가라고 했는데, 그럼 그의 오악 유람 여정을 따라가 보기로 하자. 먼저 숭산(嵩山)으로 가자.

<표1 숭산 유람 여정표>

일차	경로	유숙
제1일차	崇福宮→啓母石→弈棋亭→樗蒲亭→崇陽宮→二程夫子像→法王寺→會善寺→少林寺	소림사 방장에서 유숙
제2일차	初祖庵→五乳峰→二祖庵→煉魔亭	少室 정상 아래에서 유숙
제3일차	岳廟. 여기서 정상이 멀지 않지만 비로 인해 오르지 못함. 여기서 숭악 여행을 마침	

www.kci.go.kr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사성은 萬曆 辛巳年(1581년)에 숭악의 태실(太室)과 소실(少室) 모두를 유람하였다. 비가 내려 미처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무척 아쉬워하였지만 숭산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그 결과 그는 숭산의 경관을 다음과 같이 개괄하였다.

A) 푸른 숲 사이로 바위가 솟아 있어 마치 부용이 정상을 성처럼 두르고 있는 듯하다.

B) 태실의 큰 봉우리, 소실의 발우봉(鉢盂峰)・자진봉(子晉峰), 36개 봉이 마치 꽃 봉우리를 토하듯 한 개의 산을 이루고 있다.

숭산의 36개 봉이 하나의 꽃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숭산의 높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실 숭산은 하루 안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높이와 둘레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산이 높기로 유명한 민산(岷山), 아미산(峨眉山), 와옥산(瓦屋山)을 제쳐두고 ≪시경≫은 어째서 숭산을 '하늘보다 더 까마득 하다(峻極於天)'라며 칭송했을까 왕사성은 자문하였다. 평야 지역에 우뚝 솟아 있어 높아 보이는가? 아니면 청숙한(淸淑)한 기운이 모든 산을 영도하기 때문인가? 혹은 ≪시경≫에서 말한 '嵩高'가 숭악(嵩岳)의 높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대답은 유보하였다.[21]

왕사성은 숭산의 경관과 규모에 대한 총체적 모습을 개괄하고, 구체적인 경점을 일일이 통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정지된 경점을 원근과 전후의 경점과 연계를 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경점은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경점과 경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공간에 대한 상상력의 확장이고 새로운 경관의 창출로 이어

21) <嵩游記>: 然其讀怪宇內名山, 亡論岷・峨・瓦屋, 卽余家萬八千丈下, 猶窮日內陟其巔. 二室頂不三十里而遙, 而以爲神州首岳, 至詩稱'峻極於天'何? 豈此山隱瞬岸崿, 突出於平原大陸內, 以自軒翥, 特標所勝爲奇耶? 抑戴日至下爲天中, 鍾顥蒼最淸淑之氣, 以總領諸岳而然乎? 或謂山高爲崧, 詩稱岳之崧高, 非嵩岳之高也, 蓋堯時止有四岳. 余聞於楊用修之言云.

www.kci.go.kr

진다.

이제 태산으로 가 보자. 왕사성은 萬曆丁亥(1587)에 태산을 유람하고 <岱游記>를 지었다. 다음은 그 여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2 태산 유람 여정표>

일차	경로	유숙
선행 경로	濟寧→曲阜→寧陽→泰安	
제1 일차	岳廟→環咏亭→登封門→更衣亭→一天門→高老橋→天紳岩→水簾洞→馬棚→摩空閣→廻馬嶺→快活三→五大夫松→百丈崖→朝陽洞→大小龍峪→十八盤→三天門 天門→馳道→碧霞元君宮→青帝宮→三觀(秦觀, 周觀, 越觀)→泰山銘→唐磨崖碑→東封頌→孔子崖→玉皇殿→秦無字碑→日觀峰→月觀峰→秦封禪臺	月觀峰에서 유숙
제2 일차	捨身涯→仙人橋→玉女池→李斯斷碑 →天門→呂仙像→白雲洞('雨天下'石碣) →高老橋→石經峪 →仙人影→王母池→ 呂公洞→靈巖寺→雙鶴, 卓錫 두 개의 샘, 古柏, 石竇, 魯班洞, 辟支塔→千佛閣→甘露泉→甘露亭→抱靈亭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왕사성은 태산의 전 과정을 유람하였다. 그의 태산 유람은 선행 경로로부터 유람의 결말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회마령(廻馬嶺)에서 삼천문(三天門)까지의 구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보자. 왕사성은 회마령에서 서행하다 동북쪽으로 세 번이나 오르고 내려 쾌활삼(快活三)에 도착하였다. 이곳에는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는 동굴이 있다. 그 아래로는 물과 돌이 서로 물고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다. 여기서 이천문(二天門)이 까마득하게 올려다 보인다고 하였다. 秦나라 때 심은 두 그루의 소나무가 구불구불하며 날듯이 서 있는데 이것이 오대부송(五大夫松)이다. 여기서 다시 백장애(百丈崖)로 올라갔다. 절벽에 10여 석실이 있는데,

www.kci.go.kr

돌 속으로 바람이 들락거리며 소리가 계곡에 퍼진다고 하였다. 이곳이 조양동(朝陽洞)이다. 다시 지나니 돌 틈에서 물이 토해 나오는데 마치 용이 침을 흘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 올라가는 상반(上盤)이 열여덟 구비이다. 산을 오르는 앞 뒤 사람의 이마와 발굽이 서로 닿는다는 곳이다. 여기가 바로 삼천문(三天門)이다.22)

이처럼 왕사성은 이 구간을 모두 지나고(行), 오르며(上), 내리고(下), 따라가며(循), 들어가고(入), 통과하였다(過). 유람 노선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지나는 경점마다 왕사성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였다. 유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바라보이는 각도가 사방 상하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경관도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왕사성의 시선 속에 경관은 기이하고(奇) 더욱 또 기이하게(益又奇) 들어왔던 것이다. 선으로 이어진 공간은 무궁한 경관을 창출하고 상상력 역시 더욱 치밀해졌다.

이제 왕사성의 오악 유람 중 가장 긴 여정을 소화한 화산으로 가보자. 왕사성은 萬曆 戊子年(1588) 윤6월 20일에 화산을 찾았다. 다음은 화산의 유람 경로이다.

<표3 화산 유람여정표>

일차	경로	유숙
선행 경로	華陰 출발→岳廟	
제1 일차	玉泉院→ 桃林坪→姬夷峽→莎蘿坪→十八盤→青柯坪	청가평에서 유숙

22) <岱游記> 進嶺, 西行折東北上而下, 復下復上者三, 乃得地夷曠三里, 爲快活三也. 夷地窮, 復循崖上. 視上益斗絶, 所謂穴中望天窗者. 其下水石相嚙作建瓴聲, 枕石嗽之. 仰見鐵嶂青壁, 眞可萬尋, 是爲二天門也. 入門過御帳, 宋眞宗東封所露宿處. 帳前雙松, 老幹拳曲, 勢欲飛舞, 然可數百年, 而人輒神之爲秦物者, 五大夫松也. 飯帳內畢, 更上百丈崖, 崖有石室當十榻, 最奇, 據石而嘯, 聲從石含硏間出而裂山谷, 爲朝陽洞也. 復過大小龍峪. 石罅吐水如龍哆口然. 自此上盤道十八折, 雙闕揷天, 以峽束之, 仰視益又奇. 輿者至此, 前人與後人頂踵相摩, 應劭所謂盡重纍人者, 三天門也.

제2 일차	南峰	青柯坪→回心石→千尺撞→白尺峽→二仙橋→雲臺石車箱嶺→白鹿龕→老君犁溝→擦耳岩→猢猴愁→南峰	
	西峰	道房→依雲亭→閻王邊→蒼龍嶺→鷂子翻身→五將軍樹→通天門→宗土祠 鎭岳祠→西峰	
	東峰(玉女峰)	細辛坪→東峰(玉女峰)→ 衛叔卿이 바둑 두던 곳→昭陽洞→仙人炕→朝元洞→賀元希의避靜處→希夷避召岩→仰天池→摘星石→金天像希夷處→希夷先生煉丹處	
	다시 서봉에 올랐다가 하산	→ 다시 서봉 →石洞→宗土祠→溝崖撞峽 回心石	

왕사성 자신은 동해 가에 태어났지만 사명산(四明山, 절강성 寧波), 안호(雁湖, 절강성 溫州 雁蕩山의 호수), 백악(白岳, 齊雲山, 안휘성 休寧), 숭소(嵩少, 嵩山), 태산, 太行, 燕山, 峨眉山, 眞玄岳(항산)을 올라 이미 천하의 반을 돈 후에 세상에서 가장 험하다고 하는 화산을 오른 터였다.23)

<표3>에 의하면, 왕사성은 화산의 남봉, 서봉, 동봉을 모두 올랐다. 등산 장비와 루트가 잘 정비된 오늘날도 세 봉우리를 모두 등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면, 명나라 당시 왕사성의 유람은 놀라운 일이다. 게다가 매 경점마다 모두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것을 또 다른 경점으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확장해 갔다.

경점을 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왕사성은 새로운 경점 해석을 시도하였다. 다음 대목을 보자.

www.kci.go.kr

23) <華游記> 蓋余家東海上, 嘗問四明, 上雁湖, 過白岳, 歷嵩少, 觀封泰岱, 宿太行燕山以西, 已而嚙峨嵋雪, 尋眞玄岳, 吾行已半天下矣, 得爲岳者四, 其他山川弗論. 旣至華山, 以後知天下無復險, 亦無復勝云.

아마도 태화(太華)를 총괄해보면 세 봉우리는 연밥송이〔蓮房〕와 같고, 여러 봉우리들이 겹겹이 그것을 쌓는 꽃잎이다. 서봉을 단독으로 지칭하면 그 자신이 연꽃이고 동굴은 꽃수술(華心)이 되어 나는 이것을 '石蓮房'이라고 지었다.

<華游記> 蓋總太華則三峰如蓮房, 諸峰片片裹之, 其瓣也. 獨稱西峰, 則又自爲蓮華, 而洞當華心處, 余乃爲題'石蓮房'

화산은 본래 하얀 바위가 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왕사성은 서봉을 다른 말로 표현해야 한다며 '石蓮房'이라고 이름 붙였다. 다른 예를 보자. 화산의 백운봉(白雲峰)은 본래 사슴의 목처럼 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왕사성은 바위가 정상을 처마처럼 덮고 있다고 하여 '礙雲(구름을 건드리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바위에 새겼다.[24] 명대 오백여(吳伯與)가 적성석(摘星石) 위에 '太華絶頂'이라고 썼는데, 왕사성은 이를 다시 '표묘진(縹緲巔)'이라 이름 붙이고 새겼다. [25] 왕사성의 유람 중 이와 같은 제자(題字)는 화산의 경관에 대한 새로운 미학적 해석이며, 일종의 공간에 대한 '사적 전유'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왕사성은 직접 눈으로 경점을 확인하고 눈에 비친 경점을 묘사하였으며, 경점과 경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였다. 그리고 제자를 통하여 경점을 미학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사적으로 전유하려고 하였다.

5. 遠觀을 통한 심상의 확대

이상에서 왕사성이 유람 중에 동적 시선으로 파악한 경관에 대하여 알아보

www.kci.go.kr

24) <華游記>旋而北一山如鹿頸長里許, 名白雲峰. 有石檐覆山頂, 余爲書'礙雲'二字.
25) <華游記> 吳伯與舊書'太華絶頂'字, 余又爲題'縹緲巔'.

았다. 그러면 왕사성의 정적 시선에 보인 경관은 무엇인가? 왕사성은 발걸음을 옮기면서 경점과 경점을 선으로 이었고, 정적 시선으로 경관을 바라보았다. '遠觀'과 '近觀', 그리고 '仰觀'과 '俯觀'이 매우 자유로웠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형산 유람을 예로 들어 보자. 다른 오악과 달리 형산은 선행 경로가 길다. 왕사성은 洞庭湖→沅水→湘水로 이어지는 물길을 지나, 天下南岳道→岳祠로 이어지는 육로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그가 형산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유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형산의 둘레는 8백리이고, 크고 작은 봉우리가 72개가 된다. 이 산의 머리는 형양(衡陽)의 회안봉(回雁峰)에서 시작하고, 꼬리는 장사(長沙)의 악록산(岳麓山)이며, 나머지 땅을 가득 메운 것은 언덕[堆阜]이다. ……그래서 호남(湖南)의 지방구역에 있는 산은 모두 '衡'이라고 부른다. 72개 봉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봉우리가 아니고, 8백 리 안에 높은 산과 거대한 벼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축융봉(祝融峰)에 오르면 종횡으로 밀고 당기고 있는 것이 한 눈에 다 보인다. 대략 악묘 뒤 땅 위에서 시작하여 높이가 2만 장(丈)이고, 앞뒤로 두 겹, 좌우와 중간으로 세 갈래, 에둘러 안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정악(正岳)이다. 예부터 지금까지 유람하고 제사지내던 곳이다.
>
> 衡岳周回八百里, 大小七十二峰.首起於衡陽之回雁, 而尾長沙之岳麓, 餘則滿地皆堆阜, ……故湖南郡國山皆稱衡也. 七十二峰非連峰也, 八百里非盡高山巨崖也, 縱衡提攬, 登祝融則一目盡之. 大約自岳廟後, 拔地而起二萬丈, 前後兩疊, 左右中三支, 環抱而下者爲正岳, 爲古今游觀秩祀之地.

이상과 같이 왕사성은 형산의 특이한 형태 즉 연봉(連峰)으로 이어진 산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개별 봉우리가 모두 '衡山'임을 서술하였다. 봉우리의 개수, 머리와 꼬리 그리고 중간의 형태 등을 설명하였고, 축융봉으로 이루어진 정악인 형산의 전모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원관'이 '근관'으로 옮겨진다. 왕사성의 걸음은 호남성의 전체 '형악'으로부터 正岳의 각 봉우리로 좁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www.kci.go.kr

> 왼쪽 날개에 하나의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비단을 사이에 둔 듯 연무에 덮여 있

는 것이 부용봉(芙蓉峰)이다. 동남쪽 한 봉우리, 신록이 비에 젖으려고 하는 것이 자개봉(紫蓋峰)이다. 오른 쪽 날개에 하나의 봉우리가 구름이 없는 곳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이 연하봉(烟霞峰)이다. 서남쪽에 가재봉과 나란히 높이 있는 것이 천주봉(天柱峰)이다. 네 봉우리가 앞산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반산(半山)의 네 모퉁이(四隅)이다. 반산의 앞 일봉은 반산사의 무릎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이 향로봉(香爐峰)이다.

左翼一高峰, 籠烟霧如隔絳紗, 爲芙蓉峰. 東南一峰, 新翠欲滴, 爲紫蓋峰. 右翼一峰, 屹立無雲, 乃爲煙霞峰. 西南一峰, 高与紫蓋竝, 爲天柱峰. 四峰据前山, 爲半山四隅. 半山前一峰造寺膝, 爲香爐峰.

왕사성은 비를 피하느라 반산사(半山寺)에 잠시 들어갔다. 이때 미풍이 불어 구름이 봉우리 허리로 내려가면서 정상이 점점 드러났다. 이 때 정상 주변으로 네 개의 봉우리가 드러났던 것이다. 이 순간 왕사성은 "비단을 사이에 둔 듯 연무에 덮여 있는" 경관을 발견했다. 과학적 탐구와 지리적 지식, 그리고 풍부한 유람 경험을 넘어 심미적 경계로 들어가고 있다.

왕사성의 시선은 축융봉 정상으로 옮겨간다.

축융봉으로 올라가니 천리가 가지런히 보인다. 서남쪽에 소상강(瀟湘江)이 하나의 터럭처럼 다가와 산 뿌리에 도착하여 북쪽으로 흘러 동정호(洞庭湖)에 모인다. 스님은 동정호가 산 북쪽 창망하고 아득한 곳에 있다고 가리켰다. 나는 눈을 뜨고 오래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하늘인지 동정수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

上祝融, 則平望千里, 瀟湘如一髮西南來, 達山足北去, 瀦於洞庭. 僧指洞庭在山北蒼茫縹渺間, 余瞪目久之, 猶不辨爲天爲洞庭水也.

종으로 호남성을 가르는 형산, 그 옆을 지나는 소상강, 이 물이 흘러 들어가 모이는 동정호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왕사성의 시선 속에는 山, 江, 湖 삼자가 '구분할 수 없이' 하나로 통합되어 보였다. 원관을 통해 자신이 직접 거쳐 왔던 물길과 육로의 선행 경로를 다시 확인하였다. 그는 '창망하고 아득한 곳'을 '平望' 즉 가까운 곳에서 먼 곳을 바라보는 '平遠'의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이제 다시 화산으로 가보자. 왕사성은 화산 동봉에 올라 멀리 동해까지 시선을 두었다.

www.kci.go.kr

동봉(東峰, 玉女峰)에서 산문(三門)으로 달리고 있는 황하(黃河)를 바라보았다. 은은하게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중조산(中條山)이 검은 색을 띠고 멀리 태항산(太行山)과 이어져 뱀처럼 함께 가고 있다. 동해에 떠있는 가벼운 구름이 태양을 바치고 있어 은은하게 보인다. 마치 비단을 사이에 둔 것 같다. 미친 듯이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게 하였다.

至頂見黃河東奔三門, 殷殷似有聲. 中條黛色, 遙接太行, 與之蜿蜒俱去. 東海微雲捧日上, 在隱見間, 如隔絳紗, 乃令人不發狂大叫也.

이 역시 산수의 결합이다. 화산으로 이어지는 중조산과 태항이 굽이굽이 물결치고, 이것은 멀리 동해로 이어진다. 여기서 동해는 보이지 않지만 작가는 현실 초월을 통한 정신적 해탈을 추구했다. 경치가 '미친 듯이' 아름다웠지만 너무나 감탄하여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深遠'的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많다. 왕사성은 태산 정상에서 구름 아래 숨어서 출렁이는 대해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서남쪽에 실처럼 가물가물하는 문수(汶水)와 광수(洸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며, 전혀 보이지 않는 구몽산(龜蒙山)・부산(鳧山)・역산(嶧山)과 가물가물 보이지 않는 황화산(黃華山)과 선인석(仙人石)까지 심상적 시선으로 포착하였다.[26] 왕사성은 숭악의 누정에 올라 아래 이수(伊水)와 낙수(洛水)가 에둘러 흐르고, 물 건너 망산(邙山), 산 넘어 다시 황하(黃河), 황하 북쪽 여러 산이 놓여 있고 2백 리 안의 모두가 한 눈에 보인다고 하며, 탁월한 경관(卓觀)이라고 하였다.[27] 화산에 올라 "나는 좁쌀처럼 작게 남쪽 꼭대기에 서서 북쪽 진천(秦川)을 바라보았다. 황사가 들판을 덮어 경수(涇水)와 위수(渭水)가 터럭과 같다. 남쪽으로 소화(少華) 삼봉이 어깨와 겨드랑이를 벌려 손을 맞잡고 있는 것이 내려다 보였다."[28]라고 했다. 이렇게

26) <岱游記>: 白雲東來, 群峰盡失, 非烟非霧, 隱隱蕩漾在雲下者, 大海影也。西南涒鄰如縷, 乍明乍滅者,汶洸諸水也. 徂徠素稱賓於岱, 至此亦拱伏如兒孫. 其他埠敦滿地, 烟火聚落, 目力所不能竭者, 龜蒙・鳧山・嶧諸山也. …又東北望黃華山, 卽玉女修眞處, 與仙人石闇咸杳眇不見.

27) <嵩游記>南上一里爲祖煉魔之亭. 登亭則伊洛二河環繞其下, 河外邙山橫亘, 山外復爲黃河, 一線西來. 河北又見中條諸山逶迤不絶, 二百里內皆一目盡之, 卓哉觀也.

28) <華游記>: 余以藐然稊米, 卓立南巔, 北望秦川, 黃沙蔽野, 涇渭如毫末. 南俯少華三峰 張拱

www.kci.go.kr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산 정상에서 '俯觀'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면, 왕사성의 '遠觀'이 '近觀'·'仰觀'·'俯觀'과 하나가 되었고, 또한 평원과 심원적 시각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원관'은 <華游記>에서 "때마침 돌풍이 불어 시원해지고 옷소매를 모두 걷어 올렸다. 정말 저절로 곡식과 연기를 끊고 바람처럼 신선이 되고 싶다."[29]라고 한 바로 그 경지에 이르기도 하였다. 결국 왕사성은 산수경관에 도취되어 자신이 말한 '天游'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경치에 취하여 차마 내려가기 싫어지고, 세속을 초월하며,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나아가 정신적 해탈의 경지를 추구하려고 하였다.

6. 결론

이상에서 필자는 ≪오악유초≫에 수록된 5편의 오악 유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왕사성에게 오악은 종교적 대상, 왕권 강화의 수단, 산신 숭배의 경외의 대상, 윤리도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오악을 관념화하거나 새로운 인식을 보태지도 않고 객관적인 경물로서 해석했다.

왕사성은 오악의 전모를 경관적 시선으로 파악하고 이를 유람하여 기록하였던 것이다. 그는 직접 눈으로 산수경관을 확인하기 위해 난관을 극복하려는 탐구 자세를 가졌으면서 아울러 절경을 체험하고픈 심미적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것은 명대 중기 이후, 단순히 산수자연에 대한 완상에서 그치지 않고 산수자연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표현한 유기의 변화와 일치하고 있다.

왕사성은 동적 시선을 가지고 직접 눈으로 경점을 확인하고, 각각의 경점과

www.kci.go.kr

肩腋.

29) <華游記>: 適其時金飈荐凉, 衣襟盡擧, 眞自絶粒烟火, 飄飄欲仙矣.

경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였다. 또한 題字 등을 통해 경점을 미학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를 사적으로 전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왕사성은 정적 시선을 통해 '遠觀'을 추구하였다. 그의 유람은 관리의 유람인 宦游의 일종이었지만, '원관'을 통해 속세에 대한 초월, 상상력의 극대화, 정신적 해탈의 경지, 즉 '天游'를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王士性著, 呂景琳 點校, ≪廣志繹≫, 中華書局, 1981.

譚其驤, <與徐霞客差相同時的杰出的地理學家—王士性>, 廣西桂林一次明代地理學家徐霞客學術討論會, 1983.

徐建春, ≪王士性及其廣志繹≫, 東南文化, 1991.

徐建春, <徐霞客與王士性>, ≪浙江學刊≫ 第4期, 1992.

王士性著, 周振鶴 編校, ≪五岳游草≫, 上海古籍出版社, 1993.

周振鶴, <王士性的地理學思想及其影響>, ≪地理學報≫ 第1期, 1993.

王士性著, 周振鶴 編校, ≪王士性地理書三種≫, 上海古籍出版社, 1993.

徐建春、梁光軍, ≪王士性論稿≫, 杭州大學出版社, 1994.

朱汝略, <王士性詩歌研究>, ≪東南文化≫ 第2期, 1994.

梁光軍, <王士性的家世及其它>, ≪浙江學刊≫ 第1期, 1994.

丁苗, <王士性研究課題組活動簡況>, ≪東南文化≫ 第2期, 1994.

丁式賢, <王士性與王氏家族聞人述略>, ≪東南文化≫ 第2期, 1994.

徐建春, <王士性研究三題>, ≪浙江學刊≫ 第3期, 1994.

中國歷史地理叢論, <徐霞客游記中記述的王士性>, 第4期, 1998.

李躍軍, <淺論王士性的旅游觀>, ≪台州師專學報≫ 第21卷 第4期, 1999.

喻學才, <王士性與白鷗莊>, ≪東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1999.

上海古籍出版社, ≪五岳游草≫, 續修四庫全書, 2001.

楊昶、馬珂, <徐霞客與王士性的五岳游之比較>, 徐霞客與麗江學術研討會論文匯編, 2004.

王士性著, 周振鶴 點校, ≪五岳游草 廣志繹≫, 中華書局, 2006.

王振剛, <從≪廣志繹≫晚明地理學發展的新氣象>, ≪衡水學院學報≫ 第9卷 第1期, 2007.

www.kci.go.kr

姜勇, ≪王士性游記作品研究≫, 安徽大學 碩士論文, 2007.
敖紅艷, ≪王士性旅游思想初步研究≫, 內蒙古大學 碩士論文, 2007.
敖紅艷, <淺論王士性的旅游審美觀>, ≪前沿≫, 第9期, 2007.
徐建春, ≪俯察大地—王士性傳≫, 浙江人民出版社, 2008.
孫光輝, ≪論≪廣志繹≫的人文地理貢獻≫, 浙江師範大學碩士論文, 2008.
敖紅艷, <試論王士性的游道>, ≪內蒙古大學學報≫ 第40卷 第1期, 2008.
梁宇廣, <王士性: 可與徐霞客比肩的地理學家>, ≪南國早報≫, 2009.06.18.
李建軍, <山水游記之異彩, 晚明散文之奇葩-≪五岳游草≫的審美意蘊與文學造詣>, ≪蘭州學刊≫ 第12期, 2009.
何方形, <論王士性山水詩文的鄉關之念>, ≪台州學院學報≫ 第32卷 第1期, 2009.
董菁, <明代地理學家王士性的旅游思想>, ≪蘭台世界≫ 18期, 2013.

< 中文提要 >

筆者對王士性著≪五岳游草≫的<嵩游記>・<岱游記>・<華游記>・<衡游記>・<恒游記>五篇游記進行了文學的考察.

王士性對五岳觀念與傳統的觀念不一樣. 王士性心目中的五岳, 再也不是具有崇高美的神聖之山, 王權强化的手段, 倫理道德的 對象, 而是人們能探究・親覽觀賞的名勝名山. 王士性通過强烈的探求精神, 發現了前人未發現和游歷的五岳山水景點, 拓展了游歷空間. 王士性以審美的觀點重新展現五岳的五岳的景觀美. 王士性與明代中期以後游記作家一樣, 充滿了探究精神, 不只對山水自然的玩賞, 進一步拓展了游歷的五岳游歷空間.

王士性以動的視線新發見景點, 又景點之間連結了線的景觀. 而通過題字進行美學的解釋, 把景觀'私的專有化'.

王士性以靜的視線追求'遠觀'. 他的遊覽雖是宦游之一, 但他通過'遠觀', 企圖超越俗世, 極大想像力, 解脫精神的束縛, 達成了'天游'的境界.

關鍵詞: 五岳、游記、王士性、<嵩游記>、<岱游記>、<華游記>、<衡游記>、<恒游記>、天游、神游、人游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12. 31.	2014. 2. 14.	2014. 2. 19.	2014. 2. 24.	2014. 2. 28.

www.kci.go.kr